

# 2024 유럽연합 연구혁신의 날 참석 결과

<’24.04.05, 한-EU연구협력센터>

## 1 EU R&I Days 개요

### ① ‘유럽연구혁신의날’은 집행위원회의 연례 연구혁신 주력 행사

- 동 행사는 정책입안자, 연구원, 이해관계자 및 대중을 한 자리에 모아 유럽과 그 너머 연구혁신의 미래를 논의하고 형성
- 이는 핵심 정책 토론, 펀딩과 네트워킹 기회 그리고 워크숍 등을 제공

### ② 2019년 제1회를 시작으로 총 5회 개최

1	2019	• 9월 24일~26일 3일간 오프라인 진행
2	2020	• 9월 22일~24일 3일간 온라인 진행 • 188개국에서 35,000명 이상 참석 • 정책 컨퍼런스, 전시 등 146개 세션
3	2021	• 6월 23일~24일 양일간 온라인 진행 • 100여 개국에서 21,000명 이상 참석 • 정책 컨퍼런스, 워크숍 등 70개 이상 세션
4	2022	• 9월 28일~29일 양일간 온라인 진행 • 100여 개국에서 12,000명 참석 • 50개 라이브 세션에 200명 이상 연사 참석
5	2024	• 3월 20일~21일 양일간 하이브리드 진행

## 2 EU R&I Days 2024

### ① EU R&I Days 2024 개요

- 이번 ‘연구혁신의날’은 ‘연구혁신주간(R&I Week)’ 기간에 통합되어 진행
- 올해는 특별히 EU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40주년을 맞아 유럽을 더욱 친환경적이고, 공정하고, 경쟁력있게 만드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지난 40년간의 성과를 검토하고 프로그램의 향후 방향을 논의
- 집행위원회 주요 관계자, 유럽의회 의원, EU 회원국 정부 관계자, 산업계, 학계, 주요 협회 등에서 약 90명의 패널이 참여

※ [행사 공식 웹사이트](#)에서 행사 영상 재시청 가능

## ② 프로그램

Day 1	
14:00	Opening – European Innovation Procurement prize ceremony
14:30	R&I for Europe’s competitive sustainability
15:10	R&I Babies! A Data journey from FP1 to Horizon Europe and Beyond
	Boosting R&I investments and reforms to sustain long-term competitiveness in Europe
15:50	Access to Excellence: Closing the R&I Divide
16:30	Enhancing R&I Excellence to Bridge the Innovation Divide: The Cases of Bulgaria and Romania
	Regional Innovation Valleys: How to Design a Strong Innovation Ecosystem?
17:10	Research Security: Keep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&I Open and Safe
17:50	The AU–EU Innovation Agenda: A Forward-looking Cooperation for the Africa–Europe Partnership
	Evolution of Association of Third Countries to EU Research & Innovation
18:30	Artificial Intelligence for Scientific Discovery

Day 2	
09:00	Opening – EU Missions for the Green Deal
09:40	Exploring the R&I Dimension of the European Green Deal
10:20	Leading by Example: Success Stories on Synergies in Transport and Energy
	Energy Intensive Industries: From R&I to Deployment
11:00	Advanced Materials for Industrial Leadership
11:40	The Power of Knowledge Valorisation: Solving Complex Societal problems Focusing on Human Needs
	Innovation Ecosystems for Bioeconomy and Food Systems
12:20	Announcement of the New Mission Cities Labels
14:00	Improving Quality of Life of Young Cancer Survivors
14:40	Boosting Mental Health: For a Resilient European Population
	The Power of the Arts and Culture for People’s Well-being and Inclusion
15:20	R&I in Times of Reconstruction: How R&I Can Help Rebuild Ukraine
16:00	Research careers: Destination Europe
16:40	Transforming Research Evaluation: Igniting Academic Careers to New Heights
	Towards an ERA Free from Gender-based Violence in Science
17:15	Closing remarks

## 세션별 주요 내용

### □ European Innovation Procurement Prize Ceremony

- 제3회 유럽혁신조달어워드 수상자 발표
  - 혁신조달 이니셔티브 부문 우승자로는 혁신 조달을 위한 실행계획 및 이행을 위한 GPI 그룹을 설립한 Sardinia Research의 GPI 이니셔티브가 선정
  - 녹색에너지전환 혁신조달 부문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공공 인프라 및 건설 작업의 생태 발자국을 감소시키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한 Beam Cube의 REGEN3TIQ가 우승을 차지

## 1. A Competitive Europe

### □ R&I For Europe' s Competitive Sustainability

- 집행위 연구혁신 총국장 Marc LeMaitre 기조연설
  - 집행위는 이날 두 번째 호라이즌 유럽 전략 계획 2025-2027을 발표, 이는 호라이즌 유럽의 마지막 3년을 위한 세 가지 핵심 방향으로 녹색 전환, 디지털 전환 그리고 더 탄력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유럽을 제시
  - 전략계획 수립에는 회원국, 준회원국, 유럽의회, 이해관계자 및 시민 등 2,000명 이상이 참여
  - 지난 40년간 진행되어 온 유럽연합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연구혁신가에게 기회를 제공, R&I 협업을 육성
  - 획기적인 발전으로 전염병 퇴치를 위한 유럽의 대응, 블랙홀외 최초 이미지 포착, 청정 수소 기술 선도를 통한 기후 문제 해결 등이 포함
  - 프로그램은 33명의 노벨상 후보자를 지원하는 등 우수성을 확산하였으며, 유럽혁신위원회(EIC)는 딥테크를 위한 유럽 최대 펀딩기관으로 자리잡음
  - “유럽은 함께하면 강해진다”는 말과 같이 계속해서 힘을 합쳐 영향력 있는 10번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있고 친환경적이며 공정한 유럽을 만들기를 기원

- R&I는 생산성, 경쟁력,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성장, 기술 확보 등의 핵심 동인으로 유럽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3%를 달성해야 함

### ○ 경제담당 집행위원 Paolo Gentiloni 기조연설

- 러시아 침공 등으로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유럽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4%에 그침
- 에너지 가격 폭등, 생산성 성장 둔화, 지정학적 악화 등 새로운 도전 과제로 인해 유럽은 글로벌 경쟁 기반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음
- 유럽은 역사적으로 혁신의 발생지이며, 전 세계 인구의 7% 미만의 인구만으로 글로벌 특허의 5분의 1을 보유하는 등 여전히 과학 강국으로 남아있음
-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3% 달성 목표는 매우 중요함에도 유럽은 미국(3.5%), 일본(3.4%), 한국(4.8%)에 비해 뒤처지고 있으며 최근 중국에도 추월당하였으며, 글로벌 ICT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'13년도 22%에서 '22년도 11%까지 하락하는 등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
- 북유럽 및 서유럽 국가들의 대부분은 미국 보다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반면, 8개의 회원국은 GDP의 1% 미만을 R&D에 지출하고 있는 등 EU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EU 내 수렴 과정을 가속화하고,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 부문에서의 혁신 속도를 높이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할 것임
- 집행위원회의 최신 EU 산업 연구개발 스코어보드에 따르면 EU의 민간 R&D 투자의 성장률이 '21년 대비 '22년에 두 배로 증가, 공공부문은 이러한 노력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, 유럽은 실제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금을 통해 투자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위험 (risk)을 공유하고 있음
- 유럽은 호라이즌 유럽, 유럽혁신위원회(EIC), InvestEU, 혁신기금, 코로나 회복기금(RRF) 등을 통해 수백억 유로를 연구혁신에 투자함으로써 3% 목표 달성을 위한 모범을 보이고 있음
- 이는 회원국이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며, 유럽 차원의 솔루션이 필요

- 해결책으로는 EU 수준에서 관리되는 목표 부문별 세액 공제가 있으며, 유망한 스타트업이 유럽에 머물도록 해야할 것임
- 혁신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, 무엇보다 혁신 친화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
- 이를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여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며, 올바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임

## □ R&I Babies! (A Data Journey from FP1 to Horizon Europe and Beyond)

- 동 세션은 FP 4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40년간의 주요 데이터를 리뷰
  - 지난 40년간 프레임워크 프로그램(FP)에서 총 12만 6,000개의 그랜트 협약이 체결, 이에 따라 8만 개의 기관이 총 67만 7,000개의 참여를 기록
  - 그중 7만 4,000개의 기관은 EU 및 준회원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, 3만 5,000개 기관은 중소기업이었음
- 초기 FP 참여 기업(R&I Baby)의 구체적 성장 사례는 FP 프로젝트의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
  - R&I Babies 대표로 아래 두 가지 사례가 소개됨
  - Windcity는 에너지 분야의 선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FP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리스 등 국제적인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고객의 관심을 끌며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음
  - 이탈리아의 연구센터 CSGI는 연속 4회 FP의 지원을 받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나노 복원 약품의 개발 및 출시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, 현재까지 20종의 약품을 출시
  -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, EU 지원 프로젝트가 실제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며, 정책입안자에게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과, 헌신적인 팀원들과의 협력이 중요

## □ Boosting R&I Investments and Reforms

- 유럽의 중장기적 경쟁력 유지를 위한 R&I 투자 및 개혁 촉진 필요
  - 지난 40년간 EU는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및 구조적 개혁을 통해 EU가 연구혁신 발전을 이룩하고 투자를 증대하는 데 상당히 기여
  - 하지만 현 유럽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GDP 대비 2.23%에 불과, 목표 기준치인 3%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, 주요 경쟁국(미국, 한국, 중국, 일본 등)에 비해 낮은 투자율을 보이고 있음
  - 유럽은 중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며, 개혁을 통해 연구혁신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여 유럽 사회의 그린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신기술 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제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임
- 과학-비즈니스 연계 강화를 통한 연구혁신 투자 촉진
  - 유럽은 우수성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보다 앞서고 있으나, 이러한 우수성을 혁신과 경쟁력으로 바꾸는 데 있어 뒤처지고 있음
  - 유럽은 혁신을 주도하는 디지털 기술 부문에서 뒤처져 있으며,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은 다른 부문의 혁신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
  - 과학 분야와 경제 비즈니스 연계를 통해 보다 더 많은 투자를 촉진하고 높은 과학적 우수성을 달성할 수 있음
  - 약 5년 동안('21~'25) EU 수준에서의 500억 유로 투자 지원과 구조적인 연구혁신 시스템의 현대화 필요,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기준 목표치인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3% 수준에 도달
  - 유럽이 타 경쟁 국가와 비교해 디지털 분야 중 특히, 보건, 바이오 등 분야에서의 큰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, 아직도 유럽 내의 낮은 경쟁 구도와 몇 분야에서의 단일시장 및 벤처캐피탈 시장의 부족 및 부재로 인한 연구혁신 스타트업 및 연구소의 스케일업의 어려움이 있음
  - EU 수준의 단일시장 형성, 대대적인 투자, 정책 변화 등이 없는 한 유럽은 다른 경쟁국 사이에서 뒤처질 것임
  - 특히 많은 디지털 산업 분야 중 인공지능, 자동화 시스템 등에 투자가 필요

## □ Access to Excellence (Closing the R&I Divide)

-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내 회원국 간 서로 다른 성공 격차를 줄이기 위한 참여 확대 정책
  - EU 회원국 사이에 연구개발혁신 수준 및 성과 격차가 존재, EU는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연구자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해 옴
  - 호라이즌 프로그램 참가국의 연구혁신 능력 구축과 격차 해소를 통해 그들이 유럽 및 국제 무대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 및 지원할 필요 있음
  - 특히,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투자 및 개혁이 필요하며, 호라이즌 유럽 내 참여 확대 정책도 계속해서 증대해야 할 것임
- 국제 무대 속 EU 회원국의 경쟁 우위 달성을 위한 도전과제
  - 연구 시스템은 정적인 접근방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, 비즈니스와 같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고, 결과와 우수성에 전념해야 할 것임
  - 비교적 작은 회원국의 경우 연구에 대한 투자는 정치적으로 타협의 대상이 되고 있어 까다로운 측면이 있음
  - 대부분의 회원국은 충분한 연구 예산을 갖고 있으나 보다 현명하게 분배해야 할 필요가 있음
  - 현재 유럽에서는 스타트업 투자 유치 및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 젊은 연구혁신 인재들의 자국 이탈 현상이 빈번히 나타남
  -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국 기초과학 분야 교육 투자를 통해 좋은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, 특히, 유럽 내 작은 국가(동유럽 등)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
  - 이번 호라이즌 프로그램 속 실질적인 개혁(교육 정책, 자금 등)을 통해 전 세계 연구자들과 화합함과 동시에 균등한 지역 발전을 위해 회원국 간의 연구혁신개발 격차를 줄여나가야 함

## □ Enhancing R&I Excellence to Bridge the Innovation Divide

### ○ 유럽연합 국가 간의 혁신 격차 존재

- EU 회원국 간의 기술혁신 발전 속도, 성과 등의 격차는 끊임없이 존재해 왔으며, 이러한 현상은 혁신 성과를 저해하며 중장기적으로 유럽의 경제적, 사회적 응집력에 위협을 야기
- 따라서 유럽 전 지역의 연구혁신 우수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연구혁신 정책을 개발하여 투자 및 구조적 개혁 설계와 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함

### ○ 루마니아, 불가리아 두 국가의 혁신 정책 모범사례는 혁신 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성을 제시

-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 하에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었으며, 이들의 연구혁신 발전의 원동력을 다음과 같음:
-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, 역량·우수성 센터 개발 및 확대, 사업화 및 수용 능력 확대,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및 투자, 비기업과 연구기관 및 교육 부문 간의 소통 간격 해소 등

## □ Regional Innovation Valleys (How to design a Strong Innovation Ecosystem?)

### ○ 유럽은 지역혁신밸리(RIV)를 통해 다양한 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 간 협력을 육성하고 있음

- RIV를 통해 혁신 성과가 뛰어나거나 저조한 지역이 협력하고 있으며, 이는 많은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끌며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음
- 150개 이상의 지역이 RIV에 지원하였으며, 해당 지역의 250개 이상의 혁신 이해관계자가 참여, 이들은 호라이즌 유럽 유럽혁신생태계(EIE) 펀딩과 I3 펀딩을 통해 총 1억 1,500만 유로를 지원받으며 이는 추가로 7,700만 유로 상당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
- 특히, RIV 참여 지역들은 유럽혁신스코어보드(EIS)의 4가지 성과그룹(혁신 리더, 혁신강국, 혁신국가, 신흥혁신국가)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음



-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금 확보와 절차 간소화가 중요하며, 혁신 성과가 낮은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유럽의 혁신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함
  - 이를 위해서는 공동 자금 확보, 행정 절차 탐색, 적합한 파트너 찾기 등의 과제 해결이 필요, 즉,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강화하고, 행정 절차를 감소해야 함
  - 혁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 성과가 저조한 지역의 참여 확대에 집중하는 것이 권장되며, 이는 유럽 전역의 혁신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

□ **Research Security (Keep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&I Open and Safe)**

- 집행위원회는 최근 채택한 경제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연구 보안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을 제안
  - 이는 연구자와 연구지원기관이 글로벌 파트너와 최대한 개방적으로 그러나 필요한 만큼 폐쇄적으로 국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
  - 책임있는 국제화는 국제협력의 핵심 가치 및 원칙에 따라 학문의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루어져야 함
  - 집행위는 이를 위해 여러 연구혁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대학 등 연구 부문이 연구 보안 강화를 자체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함
  - 동 권고안은 학문의 자유, 연구 부문의 자체 거버넌스, 위험수준에 비례하는 정책, 국가에 구매받지 않는 접근방식, 모든 형태의 차별 및 낙인 방지 등 5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
- 국제 연구혁신의 핵심은 개방성에 있으나, 최근 국제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유럽 연구혁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
  - 이에 따라 유럽 연구혁신기는 국제협력 시 점점 더 많은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
  - 민감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, 양국 간의 기술 특허 분쟁 등은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가치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

- 학술 교육 및 연구가 정치적 개입 또는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 부적절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, 신기술은 EU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곳에서의 근본적인 가치(윤리, 인권 등)를 억압 또는 해칠 위험이 있음
- 따라서 모든 유럽 연구기관은 이러한 모든 위험 요소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
  - EU 또한 연구혁신이 유럽 전반적인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, 윤리적 기준을 위배하거나, 결과가 남용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함
  - 더하여 항상 과학적 개방성을 유지하되, 연구 보안 강화의 전제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임
  - 특히, 미국, 캐나다, 호주, 영국, 뉴질랜드 등으로 구성된 FIVE EYES (기밀정보 동맹체)와 같은 국제협력 간 강력한 연맹 동맹체도 필요

## □ The AU-EU Innovation Agenda

- 아프리카연합과 유럽연합 간의 연구혁신 협력은 향후 아프리카-유럽 파트너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
  - 이미 연합국 간의 고위급 정책 대화나 집행위원회와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
  - 아프리카 대륙은 2040년부로 전기 보급 및 모바일 환경 구축 등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
  - 연합국 간의 교류는 활발하나 민간 부문과의 연계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
- 주제별 AU-EU 미래 혁신 계획은 다음과 같음:
  - (혁신시스템) 향후 지속적이고 빠른 AU-EU 혁신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대시보드
  - (인적능력개발) 연합국 간의 ERASMUS+ 교육 정책을 통한 젊은 인재 양성 및 학술 교류
  - (학술연구/지식교류) EDCTP3은 의료 분야 혁신을 위한 유럽과 개발도상국의 임상시험 파트너십으로 현재 유럽 15개국, 아프리카 28개국이 참여하며, '22년 기준 약 2,000명의 연구자들이 이를 통해 협력, 약 16억 유로의 자금이 조달

- (생명공학 혁신) 말라리아 바이러스 백신의 개발은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 유아들과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였으며, 국제협력 및 투자를 통해 오늘날 아프리카 내 약 77%의 아이들이 말라리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짐
- (친환경시스템) AGENDA2063프로젝트는 Blue Economy와 기후 변화에 따른 정치, 정책 전략을 조정

## □ Evolution of Association of Third Countries

- 호라이즌 유럽의 국제 개방 확대 정책은 전례 없는 성과를 이룸
  - 이를 통해 현재 EU는 타 대륙의 경쟁력 있는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, 스위스, 일본 등의 국가와도 HE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논의 중에 있음
  - 노르웨이는 HE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하여 국제적 네트워크와 대규모 인프라에 접근하고, 연구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하고, 기후에너지 모빌리티 분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고, 특히, 해양 운송의 자동화와 R&I 첨단기술 플랫폼 구축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임
  - 터키는 FP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유망한 R&D 생태계와의 시너지 효과를 보이며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혁신 생태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,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활발하게 참여 중
  - 뉴질랜드는 HE 준회원국 참여를 통해 과학 분야에 변화를 가져왔고, 재무부는 혁신부에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등 연구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킴
- HE 준회원국은 EU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,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있음
  - HE 준회원국 가입은 제3국이 EU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, 컨소시엄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거버넌스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함
  -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서 준회원국은 전체 그랜트 협약의 21.8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제안서 성공률도 17.88%로 평균 제안서 선정률인 13.33%보다 높은 기록을 보이고 있음
  -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HE의 국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공유해야 함
  - 글로벌 과제에 대한 더 활발한 협력과 지식 기반의 강화를 강조하며,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

## □ Artificial Intelligence for Scientific Discovery

- AI가 R&I 생태계에서 점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과학 연구와 AI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을 논의
  - AI 활용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스페인의 Amadix와 Google Deepmind가 있으며, 이들은 각각 AI를 이용한 암 진단 도구 개발과 전 세계 과학자들이 수집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춤
  - ※ 본 세션에서는 AI를 활용한 과학 연구 결과 배포의 예시로 AI가 10분 만에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1시간 만에 편집을 완료한 Amadix 소개 영상을 상영
  - 과학 분야 내 AI 활용 채택은 과학적 진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음
- 과학 분야 내 AI 활용 가속화를 위한 공공-민간 파트너십
  - 공공-민간 파트너십은 공공부문의 기초 연구 노하우와 민간부문의 응용 연구 전문성을 결합하여 과학적 혁신을 실제 사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임
  - 공공 및 민간 부문이 자원과 인프라를 공유하고, 연구원들이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이 필요
  -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은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로 융합하여 혁신을 가속화해야 함
  - 또한, 모든 연구원과 과학자들의 책임감 있는 AI 활용이 필요
  - 한편, 3년 전에 출범한 공공-민간 인공지능/데이터/로봇공학 협회 Adra는 각각 다른 부문을 한자리에 모아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
- 향후 10년을 위한 로드맵
  -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AI의 기술적 도전과제로는 컴퓨팅, 데이터 액세스, 데이터 큐레이션, 스킬 개발, 에너지 소비 등이 있음
  -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, 데이터의 질, 데이터의 출처, 데이터 큐레이션 등은 머신러닝 등에 있어 매우 중요
  - 또한, 이러한 AI 도구가 발달함에 따라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, 특히 과학자들이 이러한 도구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
  - 미래의 연구는 보다 더 다학제적으로 변할 것이며, 더 많은 과학 연구가 AI를 통해서 진행될 것이므로 과학자들이 AI를 책임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 더욱 투자해야 할 것임

## □ Conclusion Day 1 (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)

- AI를 연구에 적용하면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가치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, 직면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빠르게 찾을 수 있음
  - 오스트리아와 폴란드에서는 AI를 사용하여 역사 연구를 수행하고, 중증 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의사소통을 돕고 있음
- 연구원들이 안전하고 자신있게 AI를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환경을 조성해야 함
  - AI를 활용한 연구가 스타트업으로 전환될 때, 회원국과 민간부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
  - 과학과 혁신 분야에서 AI의 사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최첨단 연구를 수행할 때는 연구원들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을 명확히 이해해야 함을 강조, 이와 관련하여 집행위는 연구 내 [생성AI의 책임있는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](#)을 발표

## 2. A Greener Europe

### □ EU Missions for the Green Deal

- EU 미션 5가지 중 4가지 미션이 그린딜과 연계됨
  - EU 그린딜 정책 2030 목표 달성까지 6년이 남은 현 시점에서 300개 이상의 기후중립도시 후보가 있는 등 그린딜 미션을 수행하는 데 많은 사회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
  -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적 주인의식 강화와 소통이 필요
- EU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에 중점을 둔 미션을 수행 중
  -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륙으로, 극심한 가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음
  - EU는 기후변화적응 미션을 통해 2030 기후 탄력성 목표를 위해 여러 지역과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음
- EU 토양 미션은 지식 교환, 지식 전달과 구현의 격차에 중점
  - 토양 관리를 위해서는 회원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
  - 지속 가능성 정책과 기후 혁신으로 알려진 도시인 벨기에 루벤은 Leuven2030을 통해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의 지속 가능한 난방 및 재생 가능 에너지를 위한 프로젝트 등을 진행
- 해양 복원을 위한 Starfish 미션은 오염 방지, 보호,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, 지식, 거버넌스 등 다섯 가지 목표를 설정

### □ Exploring the R&I Dimension of the European Green Deal

- 그린딜 프로젝트는 협력과 기술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후 솔루션을 위한 혁신을 촉진
  - 그린딜 프로젝트 지원 사무소는 프로젝트 간 연계와 네트워크 형성 등 협업을 촉진하고, 기술 강화를 지원하며, 영향력을 높이고,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

- 그린딜이 설정한 모든 목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동시에 발전시켜야 하며, 구체적이고 새로운 친환경적인 기후 솔루션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사회 혁신이 필요
- EU를 넘어 더 포괄적이고 국제적인 협력 정책이 필요하며, R&I는 유럽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
  - 호라이즌 유럽의 클러스터6(식품바이오경제천연자원농업환경 클러스터)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혁신 이니셔티브가 있으나 보다 더 효율적인 연구 결과의 적용이 필요
  - 기후 정책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정책, 경제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의 실천을 가속화해야 하고, 이를 위한 재정적 수단도 필요
  - 자연 보호와 자연 복원은 앞으로도 중요한 주제이며, R&I에 관하여 현재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식과 기술 혁신을 높이는 것이 중요

## □ **Leading by Example** (Success Stories on Synergies in Transport and Energy)

- 유럽 및 국가 차원의 펀딩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
  - Energica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, H2020의 지원을 받아 아프리카 기반 파트너 11개와 유럽 기반 파트너 17개가 통합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
  - 시멘트 산업은 유럽의 탈탄소화 과정의 선두에 서며, CO2의 95% 이상을 포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, 학계와 산업계의 연계를 위해 혁신기금 보조금을 신청
  - 청정항공 공동사업단은 41억 유로의 예산으로 지속가능한 항공기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, 국가 및 지역 차원의 투자와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자금을 유치 중이며, 유럽 내 단일 항공 프로젝트 수립을 목표로 함
  - EU-Catalyst 파트너십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자금을 결합하고 있으나, 기술 및 시장 위험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
-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한 법적 틀 마련과 공공 및 민간 자금의 결합이 필요

- 많은 연구팀이 HE 지원금 확보 후 프로젝트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이는 시간과 법적 틀 부재로 인한 문제로 인식됨
- 파트너십 가입의 큰 이점은 통합된 시스템 속에서 유럽 전역의 공급망과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임

## □ Energy Intensive Industries

### ○ 유럽 에너지 산업의 친환경화 가속을 위한 구체적 단계

- 오늘날 유럽 Net-zero Economy 친환경 정책 개혁으로 인해 철강, 시멘트, 화학, 알루미늄과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에서의 혁신적인 기술 변화가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
- EU는 호라이즌 유럽 등을 통해 에너지 집약 산업이 탈탄소화, 디지털화 등 기후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
- EU 차원에서는 회원국 간의 협업 그리고 한국, 인도 등과의 국제 협력 파트너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, 이러한 공동 노력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탈탄소화에 시너지를 내고 있음

### ○ 2050년까지 탄소 및 가스 배출량 제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2030년까지 약 4조달러의 투자가 필요

- 그린딜 프로젝트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실현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을 실현하고자 함
- CCUS(탄소포집·활용·저장) 프로젝트는 산업 공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 또는 연료연소를 포집하고, 저장 및 전환하여 사용하는 기술로 탄소 중립 및 기후 변화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
- 오스트리아의 경우 '23년 산업 변혁에 30억 유로 등 총 57억 유로 규모의 소위 기후 및 전환 기금을 설립, 첫 9개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1억 6천만 유로를 지원, 이를 통해 240만 톤의 CO2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
- 이러한 EU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수많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후 중립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



## □ Advanced Materials for Industrial Leadership

- ※ '24년 2월 집행위가 발표한 첨단소재 전략은 ①역동적이고, 안전하고, 포용적인 생태계 조성, ②녹색 목표와 우선순위 중심의 R&I 조정, ③공공 및 민간 투자 유치, ④수요 측면 강화, ⑤최고의 인재를 유치 및 훈련을 제시
- 유럽은 첨단소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, 이는 유럽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고 있음
- 유럽 첨단소재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업화를 위한 협력과 지식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, 첨단소재기술협의회 설립을 제안
  - 특히, 항공 분야에서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첨단소재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며, 소재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협력 노력을 촉구
  - 연구자자와 산업체의 상호 이해와 프로세스 가속화에 초점을 맞추고, 프로젝트 간 지식 연속성과 공유의 중요성, 그에 따른 이익을 고려해야 함
  - 기존의 기술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,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여 첨단소재의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
  - EU와 회원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기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함
  - 유럽의 재료공학 산업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소재기술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을 촉진해야 함

## □ The Power of Knowledge Valorisation

- 집행위원회는 최근 기업/산업과 학계 간의 공동 창작 및 지식 가치화를 위한 시민 참여 방향을 제시하는 권고를 발표
  - 오늘날 유럽은 기후 변화, 이민, 글로벌 팬데믹과 국제 분쟁 등 수많은 도전과제 속 높은 연구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으나, 연구 가치화는 비교적 낮게 이루어지고 있음
  - ENoLL(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)는 '06년 설립된 유럽 R&I 개발 네트워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기술을 발전시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
  - 현재 전 세계 약 500개의 실험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음

○ 제5차 제조 산업혁명(Industry 5.0)

- 오늘날 급진적인 과학 기술 발전으로 인해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의 인간 존엄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
- Industry 5.0은 인간 중심 제조를 강조하며, 인간의 지능과 감성을 통한 제조 프로세스 개선과 사회적 가치 증진을 목표로 하는 등 시민 중심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둠
- 특히, 산업과 학계 간의 존중, 개방 및 조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

□ Innovation Ecosystems for Bioeconomy and Food Systems

※ 집행위가 3월 20일 발표한 생명공학과 바이오제조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RIV가 어떻게 생명공학 우수성에 기여했는지를 언급

- 유럽혁신기술연구소(EIT) 식품혁신그룹의 사례는 올리브유 품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위한 디지털 농업 촉진과 같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제시
- 동 세션은 신유럽혁신어젠다 내 바이오 경제 및 식품 시스템을 위한 지역혁신밸리(RIV)의 개념을 탐구
  - RIV는 생명공학 우수성의 부문별 중심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기후 변화 및 생물다양성과 같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
- 패널들은 존재하는 시스템의 단편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정 강화, 지역간 클러스터 육성, 유럽대학동맹과 같은 기존 네트워크 활용 등을 제시
  - 연구혁신의 단편화 및 지역별 혁신 격차, 대학과 산업체의 독자적인 활동으로 인한 파편화가 존재
  - RIV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하나로 모으는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로, 연구원, 교육자, 기업가, 지역 및 국가 정책입안자, 시민사회가 모여 바이오 기반의 유럽 공동사업단 등을 통해 혁신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 - 혁신적인 협력 프로그램과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기업의 지원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이 중요
  -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리스크 공유와 깊고 장기적인 혁신적 노력이 지속 가능한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것으로 보임

## □ Announcement of the New Mission Cities Labels

- 본 세션은 호라이즌 유럽 5개 미션 중 하나인 기후중립스마트도시 미션을 다룸
  - 현재 도시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전 세계의 약 70% 이상을 차지하며,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65%를 차지
  - '22년 4월 EU 내 100개 도시와 HE 준회원국 12개의 도시가 기후중립스마트도시 미션 참여 도시로 선정
  - 이들의 목표는 약 2억톤 가량의 이산화탄소 등가를 감축하는 것으로, 이는 네덜란드와 크로아티아의 연간 총 배출량과 같은 양
  - 지난 '23년 10월, EU 10개 도시가 '30년까지의 미션 라벨을 수여 받음
  - 이번 세션은 이에 이어 23개 도시에 임무 라벨을 수여
- EU 코로나회복기금(RRF) 활용
  - EU 회원국 경제 회복을 위한 7,000억 유로의 기금 중 이미 약 2,250억 유로의 예산이 유럽 스마트시티와 경제 회복 계획 등에 사용되고 있음
  - 모든 EU 회원국 도시의 에너지 효율과 리노베이션을 위해 약 920억 유로가 지원됨
  - 헝가리 페치 도시 시장은 이번 스마트 도시 계획을 통해 젊은 세대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

### 3. A Fairer Europe

#### □ Improving Quality of Life of Young Cancer Survivors

- 연구혁신의 발전과 투자의 도움으로 오늘날 유럽의 암 생존률이 증가, 오늘날 약 50만 명의 소아암 환자를 포함, 1,200만 명의 암 생존자가 있음
  - 이러한 훌륭한 성과에도 불구하고, 많은 젊은 생존자들이 치료 과정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, 이는 우울증, 불안 등의 정신 건강 문제를 초래하고 또 다른 병(만성 통증, 심혈관 질환 등)을 유발할 수 있음
- 유럽 암퇴치 미션은 최첨단 연구혁신, 암 치료를 넘어 암 생존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함
  - 실제 암 환자였던 현 사회보건복지 전문가인 Ajda Cvelbar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오늘날 호라이즌 유럽 보건 분야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
  - '23년 초를 시작으로 젊은 암 생존자들과의 대화를 개시, 의료 복지 분야에 필요로 하는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추진
  - 정신 건강은 오늘날 시민 보건 분야에서의 주요 우려 사항으로 채택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며, 질 높은 사회 지원과 접근성이 매우 중요
  - 또한, 암 세포 추적 치료, 교육, 정보 접근성 등 환자 간의 불평등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도전과제로 지목됨

#### □ Boosting Mental Health for Resilient EU Population

- 정신 건강은 EU 전역의 공중 보건, 경제 및 사회 내 큰 관심사로 유럽 내 현재 약 8,400만 명의 사람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갖고 있음
  - 정신 건강 문제로는 열악한 근무 환경, 과도한 업무(번아웃 등) 및 스트레스, 불안정한 직업,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로, 인종차별 등 많은 요인이 존재
  - 특히, 코로나19, 경제 위기, 국제분쟁 등이 더해지며 유럽 시민들의 정신 건강 문제는 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음

- 이에 따라 유럽의회는 유럽 시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신 건강을 보건 분야 정책 결정의 중심에 두는 것을 지지해 옴
  - 현재 유럽의회는 공중 분과위원회(SANT)를 통해 정신 건강에 대한 자체 이니셔티브 보고서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음
- 본 세션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연구혁신의 개발이 필요한지 유럽 직장 내 정신 건강 증진 사례를 통해 모색
  - 또한, 연구혁신이 정신 건강 문제에 어떠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알림
  - MENTUPP 프로젝트는 '20년부터 현재까지 EU 지원을 통해 18개의 다학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 정신 건강 프로젝트로 유럽 11개국, 미국, 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음
  - 본 프로젝트는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단계적인 해결책을 통해 직장 내 정신 건강 개선을 실현함으로써 우울증과 자살 총동 억제 등의 결과를 가져옴
  - 또한, MENTUPP Hub을 통해 연구 자료, 증거 및 국제 자문단의 정보를 모음으로써 정신 건강 문제 개발을 향상

## □ **The Power of the Arts and Culture for People' s Well-being and Inclusion**

- 예술과 문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
  - 사람들의 예술과 문화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접근성과 참여 역량을 향상하는 노력도 필요
  - HE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이 스트레스나 외로움을 줄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으며, WHO 연구도 예술이 환자의 회복률을 향상할 수 있음을 확인
- 예술과 문화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, 그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

- 시각 예술의 효과에 관한 연구 중에는 영향을 검증하는 실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
- 학제간 연구 및 행정 발전을 통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
-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한 지역에서 가능한 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제도 시행 시 이를 고려해야 함
- 예술과 문화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며,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그룹 간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음
- 행사에서 공개 진행된 실시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, 참석자들은 새로운 정책의 발전을 위해 소통, 자금 지원,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이 중요하다고 평가

## □ R&I In Times of Reconstruction (How R&I Can Help Rebuild Ukraine)

-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최소 우크라이나 35%의 연구 인프라가 손실되는 등 연구자 감소 및 안보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음
  - 그럼에도 우크라이나의 경제 및 연구혁신은 회복세를 보이는 등 호라이즌 유럽 참여의 순기능이 나타나고 있음
  - 그러나 여전히 전반적인 모든 분야(디지털, 근린, 재건사업 등)에서의 EU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속적인 연구혁신 투자, 교류 및 화합의 필요성이 강조됨
- 우크라이나는 기초과학이 잘 발전된 국가로 이미 호라이즌 유럽에서 85개의 그랜트 협약을 체결
  - 이 중 49개는 러-우 전쟁 중에 체결되었으며, EU는 2,500만 유로 규모의 MSCA4Ukraine, 2,000만 유로 규모의 EIC4Ukraine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연구자를 지원하고 있음
-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는 글로벌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받는 등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가 되고 있음
  - EU는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4년간 약 71조원을 지원, 한국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등 공적개발원조(ODA)에 5조원을 투입하였으며, 최근 G7 서밋과 미국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

## □ Research Careers: Destination Europe

- 동 세션은 유럽 내 연구혁신에서의 젊은 인재 이탈 문제 및 전반적인 EU 투자 예산과 교육 정책 문제 등을 논의
  - 오늘날 유럽 내 연구혁신가 수는 약 200만 명으로 1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70만 명이 증가
  - 하지만 이는 전체 노동인구의 약 1%에 미치는 수준에 불과, 더 많은 연구 인력이 필요
  - 젊은 인재들의 탈 유럽 현상의 원인으로서는 질 낮은 근무 환경, 성평등 문제, 연구자-투자자 간의 소통 문제로 인한 신뢰도 하락 등이 있음
  - 미국 투자자들에 비해 유럽 투자자들은 연구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유럽 젊은 인재들 사이에서 스타트업 추진 및 투자 등에 어려움을 야기, 유럽 이탈 현상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
-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의 적극적인 근무 환경 개선 및 정책 변화가 필요
  - 유럽은 젊은 인재의 본질적인 문제인 졸업과 커리어의 연결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임
  - 또한, 재정 지원 정책을 통한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투자 개입이 필요하며, 특히, MSCA 펀딩 프로젝트와 EACEA(유럽교육문화집행청) 프로그램 등의 적극 투자 및 활용도 필요

## □ Transforming Research Evaluation

-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평가개혁은 유럽단일연구공간(ERA) 정책 안건에서 꾸준히 다루어 왔음
  - 연구혁신에 있어서 연구 평가는 연구의 질 향상, 연구자의 경력 진전, 글로벌 경쟁력 강화, 기술 이전 향상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함
  - 본 세션은 현재 약 300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 연구 평가발전연합(CoARA)의 연구기관 간의 협약을 통해 연구 평가와 연구 경력 간의 다양한 연결점 및 개혁된 평가 방법을 제시

○ EU는 연구 평가에 있어 “Publish or Perish” 문화를 지양해야 함

- 이러한 문화는 연구의 다양성과 도전적인 실험 연구 동기부여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, 편향, 왜곡된 연구, 더 나아가 정실인사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
- 또한, 과도한 연구 결과를 출판하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있어 압박과 스트레스를 주며, 근무 환경에도 악역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연구의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
- 실제 예로, '23년 노벨의료부문 수상자 Katalin Kariko는 네이처 부문에 제1저자 논문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과 소위 명문 교육기관인 아이비 리그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노벨상 후보에 오르지 않았다고 전해짐
- 패널들은 대학과 연구기관 간의 공정성과 다양성이 현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

□ **Towards an ERA Free from Gender-based Violence in Science**

※ 1999년 집행위는 여성과 과학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발표, 성평등에 관한 연구혁신과 지원이 시작되었으며, FP를 통해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옴

○ **성별 기반 폭력이 없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의 중요성**

- 학술 및 연구 환경에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 문제 해결이 시급
- UNICEF 프로그램과 제로 관용 정책을 위한 EU 베이스라인 전략 등의 이니셔티브 등에서 볼 수 있듯 협력, 책임, 정책 강화가 젠더 기반 폭력 퇴치를 위한 필수 요소임
- 젠더 기반 폭력이 만연하고 있으며, 이는 연구의 질과 개인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
- 젠더 기반 폭력 해결을 정책 의제 우선순위로 삼고,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촉구



## □ Closing Remarks (DG RTD 총국장)

- 이번 행사는 다양한 세션을 통해 유럽의 R&I 경쟁력, 지속가능성, 공정성을 다룸
  - 동 행사는 EU 지원 프로젝트와 그 주요 파급효과를 소개하였으며, 특히 기후변화나 헬스케어 등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한 R&I의 중요성을 강조
  - 또한, 동 행사에서는 EIC 영향 보고서, HE 전략 계획 2025-2027 등 최근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발표됨
  - 이번 행사에는 6,000명의 온라인 세션 참석자를 포함하여 4,000명의 현장 참석자가 있었음
- 유럽은 높은 R&I 성과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음
  - EU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이 3%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럽이 통합적인 발전을 보여야 하며, 공공 민간 자원을 활용하고, 혁신 친화적 생태계를 수립해야 함
  - 유럽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R&I에 대한 투자 증가가 필요
  - 시민 참여, 파트너십, 미래 유럽 R&I를 위한 변혁적 의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, 또한 R&I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참여가 요구됨